

꽃꽃 모습들



자주쓰풀 - 김정일(사진)
 자주색이라 자주 강한 쓴 맛이라 혀를 마비 시킬 정도라서 쓴 풀이랍니다. 그래서 자주쓰풀 이라고 불리나 봅니다. 그 쓴 맛은 간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마운 풀이네요^^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우리 지역의 바닷속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으며 어떤 풍경을 하고 있을지.. 또한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라진줄 알았던 해마가 목격되었다는건 아주 반가운 소식일겁니다.

(11/17 오통도에서..)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사람은 길을 만들고, 동물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무국 소식

1. 차량이 출고됐습니다.



13년된 스타렉스 차량을 바꾸기 위해 '십시일반'모금을 한 결과 7개월간 19,519,600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차량이 출고됐습니다. 옆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이라고 쓰여진 자석스티커도 이노아트 후면으로 붙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탄생된 새 차 입니다. 환경운동에 꼭 필요할 때 쓰는 운송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불어, 모금에 약정하신 회원님들은 10월부터 10개월 약정금액을 더해 회비를 인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모금(목표:2500만원)은 2012년 12월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2. 여수환경연합 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012년 사업평가와 2013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회원님들의 폭넓은 의견과 사업계획을 들려주세요. 또한 2013년 여수환경연합 집행위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은 회원 가입한지 2년 이상이면 누구든 자천 및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문의 : 사무국(061-682-0610, yosu@kfem.or.kr)
 - 담당 : 문갑태사무국장 (010-7574-1843, mgt@kfem.or.kr)

시선집중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 역할 못해



◇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60개소) 결과, 73%(44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 환경부, 인·허가제 개선을 위해 검증식 허가제, 허가내용 갱신제 등 도입 계획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9월(2개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을 지정·관리중이다.

□ 최근 허가·신고 내역을 변경했거나 특정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 60곳의 원폐수 또는 방류수를 채수·분석해 특정물질의 배출 현황을 파악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설의 50%인 30곳에서 최소 1개, 최대 10개의 특정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 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 구리, 시안, 6가크롬, 클로로폼 등으로 확인됐다.

□ 특히, 주요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도 특정물질을 배출(29개소 중 8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수계 영향권역별로 배출시설 제한지역(총 13,102.3km)을 지정·고시(제33조)

□ 반면, 14곳에서는 구리 등 단일물질이 먹는 물 수준 이하로 검출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16곳에서는 특정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 이러한 상황은 최근 산업고도화로 배출공정, 오염물질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지자체 인허가 업무는 이를 검토할 전문적인 검토시스템이 없어 형식적인 서류 검토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됐다.

□ 이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허위로 인허가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신청서에 수질 오염물질 배출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만연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감시단에서 수사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전국 배출업소에 대한 특정물질 배출실태를 입지제한지역, 1~3종 시설 등 주요 지역·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검증식 허가제 도입, 허가내용 갱신제 도입, 기술검토 절차 신설 등 현행 인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또는 거짓허가 : 20개소(여수지역 3개소)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행정처분(폐쇄명령) 대상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및 사업장 규모	허가(신고필) 내역		조사 결과 (특정물질 검출)
			수질오염물질 배출 항목	특정물질	
호남 석유 화학	전남 여수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물질제조 (1종)	pH, COD, BOD, SS, N-H, T-N, T-P	미배출	구리, PCE, 셀레늄,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페놀, 벤젠
휴캠스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 (2종)	pH, COD, BOD, SS, T-N, T-P, 음이온계면활성제	미배출	시안, 구리, 유기인, 비소, 셀레늄, 클로로포름, 1,1-디클로로에틸렌
한국 실리콘	"	다이오드 및 반도체 소자 제조 (2종)	pH, COD, BOD, SS, T-N, HF	미배출	구리, 비소, 납, 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환경부 2012.11.23 보도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오염 예방기능 못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 9월(2개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을 지정·관리중이다. 최근 허가·신고 내역을 변경했거나 특정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 60곳의 원폐수 또는 방류수를 채수·분석해 특정물질의 배출 현황을 파악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설의 50%인 30곳에서 최소 1개, 최대 10개의 특정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 구리, 시안, 6가크롬, 클로로폼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요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도 특정물질을 배출(29개소 중 8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14곳에서는 구리 등 단일물질이 먹는 물 수준 이하로 검출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16곳에서는 특정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산업고도화로 배출공정, 오염물질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지자체 인허가 업무는 이를 검토할 전문적인 검토시스템이 없어 형식적인 서류 검토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됐다.

□ 이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허위로 인허가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신청서에 수질 오염물질 배출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만연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감시단에서 수사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전국 배출업소에 대한 특정물질 배출실태를 입지제한지역, 1~3종 시설 등 주요 지역·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검증식 허가제 도입, 허가내용 갱신제 도입, 기술검토 절차 신설 등 현행 인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22일 12:49 [환경일보] 김영에 기자

11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회의실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소저지 전국대책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광주, 당진, 전주에서 오신 분들과 전국사무처 그리고 김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김제는 사업계획서 제출도 모른 채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찬성으로 지경부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0개 기업이 59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신청용량만 54,840MW입니다. 북항화력30기 원자력8기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계획이죠. 이중 정부는 22,000MW의 용량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포함)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정을 봤을 때 지경부에서 이번 달 정도에 시안이 나오고 12월에 공청회를 하고 12월 말에 확정을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여수시는 시의회와 시에서 부동의 했기 때문에 감점 10점을 받은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석탄화력에 반대한 지자체는 8곳이라고 합니다. 100점 만점 중 10점만 감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설비분야에서 어떤 점수를 받아 여수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에 들어가서(http://vote4green.org/) 신규석탄화력중단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약속자는 13명 뿐입니다. '4대강 진실규명과 재자연화'가 가장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 4대강과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에도 많은 약속 부탁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석탄화력발전소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당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도심 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이것이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입니다.도심보다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당진시민들,여수도 동참해야겠습니까? 당진의 경우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서 확정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가 분안에서 급작스럽게 확정이 되기 까지 했다고 합니다.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2. 11. 27 여수환경운동연합 정비취

[이수정의 환경도서 읽기]

다시한번보요! 슈거블루스



슈거 블루스/윌리엄 더프티 지음/북라인
설탕에 관한 불편한 진실

아이들 삶의 질을 바꿔줄 책이라 생각해서 어른이 읽는 책 한권 소개하려합니다. 먹거리가 사람의 몸과 정신을 만들어 갑니다. 어찌 먹은 음식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라면 아이들 또한 예외가 아닐 수 없지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지로 위험한 먹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누가 먼저 사탕을 건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탕을 먹고 과자를 먹어야 아이답다는 생각은 누가 큰 이익을 보는지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슈거 블루스를 만나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이 책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설탕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윌리엄 더프티는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설탕으로 또 그로인한 질병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날달이 얘기합니다. 슈거블루스에는 설탕의 역사, 설탕으로 인해 생겨난 각종 정신질환, 설탕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면이 작아 일일이 정리 해듯 울리니 꼭 읽어 보기를 간청합니다.

진실 및 가지 얘기합니다. 설탕은 인류 역사 제 1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마약이나 방사선보다 더 나쁘고 짙을 주시라고 하는 동양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정제된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과정은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미네랄을 소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균형이 깨져 산성으로 기울고 각종 염증성 질환, 정신적 허스레틱, 그러니까 저혈당에 빠집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뇌 활동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은 체소에 다량 함유된 글루탐산이 뇌의 기능을 억제시키거나 진행시키는 것인데 비타민B군은 비타민B군이 필요합니다. 비타민B는 장속에 있는 세균이 합성을 하는데 매일 정제설탕을 먹으면 장 내 세균이 죽어 비타민B군은 점점 없어지게 되어 뇌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졸라기도 하고 계산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데는 무설탕인 식사와 간식 속에 꼭꼭 숨었던 정제된 설탕도 한몫을 한것이지요. 엄마들이 민감할 이야기입니다. 설탕과 비만에는 무슨관계가 있을까요? 과다한 당은 포도당으로 전환된 후 글리코겐형태로 간에 저장됩니다. 매일 많은 양의 당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간의 용량도 한계에 다다르겠지요. 이렇게 초과된 글리코겐은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활동이 둔한 배, 엉덩이, 허벅지에 정착하게 되고 다음은 몸속, 그러니까 내장지방으로 뱃속에 쌓이게 됩니다. 저자는 설탕을 끊은 후 6개월 만에 체중이 30kg 감량되었답니다. 정제된 설탕은 이렇게 각종 정신질환, 면역체계, 내분비계, 소화계에 영향을 끼치는데도 마약처럼 단속대상이 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 전드러나 딱 달라붙어있었지요. 이러한 진실들은 힘을 발휘하기가 힘든 세상 구조입니다. 정제된 설탕과

정제된 설탕은 잇속을 챙기는 세력들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제된 설탕 끊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 반가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정제된 설탕을 먹으면서 인출된, 비타민, 각종 영양보충제를 구매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아주 달콤한 케이크도 먹고 간장을 챙기겠다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같이해 가고 있습니다. 슈거 블루스 뿐만 아니라 음식에 관한 여러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라는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는듯합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자신과 가족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쇼핑, ABCD.....영양보충제를 시간 맞춰 먹고 먹어가며 먼 길 돌아 해매고 있지는 않은지 슈거블루스를 만나면서 생각해 봅니다. 설탕은 두뇌에 작용하는 환각제이다. 섭취하는 즉시 몸과 마음이 나른해 지면서 환각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한다. 59page 모두가 이런 일슈거 블루스를 겪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강한 부신을 지니고 태어난다. 61page 신선한 사방무의즙은 8500IU의 건강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나 거의 같은 칼로리를 지녔을 설탕의 에너지는 제로이다. 63page 뇌손상야와 학습장애야, 과잉 행동 장애 아동과 정신병 아동을 임상 연구모두가 이런 일슈거 블루스를 겪지는 않는다. 즉 부모와 조부모들이 당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한 이 아이들은 저혈당이나 기능성 저혈당증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은 몸에서 당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뇌속에는 조산한 결과 단맛과 캔디, 케이크, 커피, 카페인성 음료, 설탕이 듬뿍 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82page 알레르기만 설탕이 부신을 자극하여 생기는 오직 한 종류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애초부터 설탕을 문제없이 처리할 만한 강한 부신을 타고 태어났다 해도, 부신이 당을 처리하다가 지쳐 버렸다는 신호를 줄 때까지 설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모든 형태의 설탕을 끊어 버리면 그만이다. 93page 결핵의 방법을 세균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설탕 소비와 관련하여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의 체내 환경이 세균 감염을 초래한다고 한다. 98page 비타민은 요소 같은 약이 아니다. 비타민은 젖에도 들어 있다. 모체나 젖소는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비타민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연이 스스로 충분한 양의 음식을 생산하는데, 인간의 음식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자연이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우리 스스로 합성한 식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수팽스러운 일이다. 169,170page 설탕을 끊는 데 나에게 효과가 있었던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설탕과 육류를 동시에 끊는 것이다. 지금은 육류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까마득한 옛적부터 내려오는 동양의 지혜를 곧 깨닫게 되리라. 남성적이고 양(陽)의 속성을 가진 육류를 먹으면 반대 성질의 것, 즉 매우 달콤하고 여성적이며 음(陰)적인 음식으로 체내 균형을 맞추려는 강한 욕구가 일어난다. 257page 설탕은 술은 물론이고 담배에도 들어있답니다.